

# 부산체육

톡톡



부산광역시체육회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DECEMBER 2021 VOL.22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유도회 심의위원장  
안영환 원로 인터뷰

## 노력의 땀방울

부산광역시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인터뷰

##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의 진산처럼  
구민이 주인이 되어  
일상의 생활체육을 누리다!  
금정구체육회

## CONTENTS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유도회 심의위원장 안영환 원로

최고의 경지에서 최선의 유도를 하다



**노력의 땀방울** 부산광역시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화려한 발놀림, 금빛을 향해 하이킥을 날리다!



**구·군체육회를 가다**

금정구체육회

부산의 진산처럼 구민이 주인이 되어 일상의 생활체육을 누리다!



**학교체육 탐구생활**

이사벨중학교 배구스포츠클럽

선한 팀워크로 행복한 배구를 하다



**이슈 앤 포커스**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 개최





# 최고의 경지에서 최선의 유도를 하다

안영환 원로는 왜소한 체격을 극복하고 심신(心身)을 단련하기 위해 유도를 시작했다. 그 후 34년간 봉직하며 평생 유도를 업(業)으로 삼고 교직과 심판 활동에 매진해왔다. 또 부산 유도인으로서 처음 9단 반열에 올라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체를 단련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데 유도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요.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 유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유도의 덕목 중에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뜻의 유능제강(柔能制剛)만 봐도 알 수 있죠.”

##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유도회 심의위원장

**안영환 원로**



GAMES OF THE 24TH OLYMPIAD SEOUL 1988



제14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THE 14TH WORLD JUDO CHAMPIONSHIPS FOR MEN 1985 SEOUL

유도선수로 활동하던 안영환 원로는 교직에 몸을 담으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그의 훌륭한 가르침은 첫 번째 제자인 부산광역시유도회 신득성 회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내내 안영환 원로의 걸을 지킨 신득성 회장은 사심을 버려야 잘할 수 있는 게 유도라며 기본 동작인 카타를 강조했다.

198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유도 국제 심판 B 자격에 이어 1983년에는 홍콩에서 국제 심판 A 자격까지 따낸 안영환 원로의 심판 경력은 일일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1984년 제3회 세계여자유도선수권대회 국제심판,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경기대회 심판에 이어 1986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대륙간 유도대회에서 아시아 대표 심판을 맡았다.

“아시아를 대표해서 딱 한 명만 참가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 뽑혀서 나갔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놀랍고 운이 좋았어요.”

안영환 원로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좌우명 삼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 그 묵묵했지만 찬란했던 삶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 노력의 땀방울

부산광역시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시  
체  
육  
회  
관



# 화려한 발놀림, 금빛을 향해 하이킥을 날리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으로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석권했다. 그뿐만 아니라 은·동메달까지 계속해서 수상을 이어나가며 전국체육대회에서 눈부신 성과를 써내려오고 있다. 2008년 창단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도자와 선수들 그리고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까지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매진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성과는 많은 훈련량이라는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됐다. 고강도, 장시간의 훈련을 통해 기량이 향상될 수 있을 만한 인재들을 선발했고 선수들은 지도 경험이 많은 감독들을 만나 열정과 노력을 꽃피우며 실력을 향상시켜갔다.

훈련은 많은 양만이 아니라 질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본이자 최우선으로 여겨 훈련 프로그램에도 적극 반영했다. 그리고 선수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강화된 훈련에도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 계획표와

함께 운동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는 팀의 성과가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하나의 선례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선수들을 포함한 모두가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자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팀이 되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구·군체육회를 가다 금정구체육회



부산의 진산(鎭山)처럼

## 구민이 주인이 되어 일상의 생활체육을 누리다!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금정구체육회는 21개 종목(16개 정회원, 1개 준회원, 4개 인정단체), 198개 클럽, 5,568명의 동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5월 새롭게 리모델링해 재개장한 오륜동인조잔디구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신천테니스장, 노포게이트 볼장, 금정구민체육관 등에서는 다양한 체육활동이 펼쳐진다.







## 장성수 회장의 각오!

저는 구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체육문화를 즐기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금정구체육회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공공 체육시설인 금정국민체육센터와 업무 협조를 통해 금정구민들에게 무료 수업을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스포츠를 통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정구체육회가 사랑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축구다. 매년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대회, 창립기념대회 등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제32회 시민체육대회 우승 등 각종 대회를 휩쓸며 지역 체육의 위상을 높였다.

노인인구와 초고령사회에 발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도 이끌어내고 있다. 또 학교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와 금정구체육회 지도자들이 온천천 일원으로 찾아가 구민들에게 올바른 운동기구 사용법을 지도하는 '우리동네 체육코치' 자체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3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한 팀워크로 행복한 배구를 하다

## 학교체육 탐구생활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 여중부 1위  
이사벨중학교 배구스포츠클럽



이사벨중학교에 들어서자 운동장 한쪽에 배구 네트가 보였다. 교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모였고, 한마음이 되어 연습을 시작했다.

“배구는 뛰어난 선수만이 주목받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공격이 조금 약해도 공만 잘 올려 주면 팀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2015년 창단을 시작으로 2017년과 2018년에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 여중부 3위, 2019년에는 여중부 1위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비결이 있다.

“대회에 나가면 여러 공이 섞이는데 우리 공은 까매서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그 만큼 열심히 한 거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 개최

부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가 지난 11월 27일(토) 개최됐다. 종목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족구, 축구, 테니스, 파크골프 총 6개이며 무관중 경기를 원칙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가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2년 만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반갑고, 기쁘다”며 “이번 대회가 침체된 생활체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회 결과 종합시상에는 경기력상에 사상구, 성취상에 사하구, 질서상에 금정구와 영도구, 강서구에게 돌아갔다. 화합상은 남구, 연제구, 기장군이 받았으며 건강상에는 중구를 포함해 8개 구(區)가 차지했다. 경기운영상은 족구, 그라운드골프 종목이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